

이은무 선교사 선교 칼럼(3)

한 사람의 소중한 지도자

도날드 맥가브란(Donald McGavran) 박사가 선교 현지 리더십을 말할 때 풀뿌리 리더십, 로컬 리더십, 국가 리더십, 그리고 국제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여 저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군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. 예수님의 교육의 대상은 풀뿌리 리더십(Grassroot Leadership)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들을 3 년간 교육을 하셨다. 강력한 훈련 후에 저들에게 전 세계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. 저들의 수준을 보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다. 평소 때에서 "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"(요한 14:12)라고 하시면서 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. 주님의 지상에서의 사역들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평안히 하늘 나라로 떠나셨다.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 보시지 못했던 지중해의 연안국가들과 로마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파자가 되었다.

한국의 근대사에서 한국의 개화를 이끌고 한국 정치사를 바꾸어 놓은 인물들의 뒷 배경을 보면 여러 선교사들의 주선과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승만 박사는 선교사들이 세운 배지 학당을 다녔고 일본 강점기에 선교사가 준 영어성경을 가지고 5 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영어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덕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교(학사), 하버드 대학교(석사),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(박사) 등 유명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되었다. 선교사의 성경책 한 권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. 그는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시작하기전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향에 "교육과 선교를 통한 기독교 국가 건설"이라고 기록했다고 한다.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바꾸어 준 선교사의 영향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. 한국의 첫 대통령, 건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명적으로도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는 비록 학위도 변변치 않는 무명의 인물일지도 모르는데 그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.

필자는 1976 년 인도네시아 정글 사역을 하면서 모기가 물리고 말라리아 병이 걸리며 정글 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넘어져 무릎뼈가 깨지고,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든



죽음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저들의 작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. 도시에 가까운 안중안 (Anjungan) 신학교를 설립 할 때 정글 속 교회개척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전했는데 그 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의 개척 사역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, 지난

6월말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선교사 대회에서 보여 준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견하기만 했다. 저들은 선교사이며 교수였던 필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 하나님은 안중안 신학교에도 저들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빠무지라는 한 지도자(사진 왼쪽)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. 필자는 이 선교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"여러분들은 나 보다 더욱 훌륭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니 이 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"라고 격려를 하고 돌아 왔다. 하늘 나라로 떠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"더욱 큰 일"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.

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때에 당연히 만들어진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운동이 아닐 수 없다. 한국에서의 선교 운동이 그랬듯이, 선교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영국이 그랬고, 미국이 그랬듯이 선교는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축복의 길이고, 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고,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교 운동은 한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.

이러한 축복의 길을 한국 교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. 우리가 놓치면 다른 국가들의 독차지가 될 것이고, 우리의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. 이제는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성숙한 선교, 전략 있는 선교를 논해야 때이고, 협력을 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.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선교는 곧 그 나라와 국가에 가져다 줄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향후 한국 선교의 방향은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,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문화로 재창출하는,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.